

경제관련 부정적생활사건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개인의 대처양식과 배우자 지지행동의 중재효과에 관한 연구

: 성차를 중심으로

한 경 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강 해 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는 부정적 생활사건 중 경제영역이 성인남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재변인으로서 배우자의 지지행동과 대처양식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가족은 하나의 경제단위이며 부부는 경제적 협력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사건 연구들은 주로 남성 위주로 진행되어 온 바, 경제사건이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적·사회적 자원의 완충효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문헌들은 생활사건이 스트레스(stressor)로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일한 생활사건이라 할지라도 생활사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사회적 자원의 중재효과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이때 개인적 자원은 정서중심 대처와 문제해결중심 대처로 구분되고, 사회적 자원은 가족·친구 등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도움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원을 기혼남녀에 있어 가장 효과적 자원으로 언급되는 배우자의 지지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관련 부정적 생활사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개인의 대처양식과 배우자의 지지행동은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이때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탐색하여 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중년기 발달요인 탐색: 정신건강 및 일/가족 라이프 코스의 한미간 비교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 중 30세-59세이며 현재 기혼상태인 성인남녀 150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단순상관관계, 경로분석을 통하여 실시되었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의 경우, 경제관련사건을 경험할수록 정신건강이 나빠졌다. 대처전략의 경우 정서중심 대처양식만이 경제사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켰다. 배우자의 지지변수는 남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사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여성의 경우 경제사건을 경험할수록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는 저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경제사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전략은 그 자체로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제사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정적 생활사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를 중재하는 변수들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